

지역 상권 연계 주민 주도로 동구 이야기 콘텐츠 ‘눈에 띄네’

동구 총장축제 ‘2025 피나클 어워즈’ 금상 수상

다층적 참여...경제·문화 활성화 모델 등 호평

광주 동구는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 축제가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한국지부가 주최한 ‘2025년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지역활성화형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는 한국·아시아 축제의 품질 향상과 글로벌 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아시아·세계대회로 이어지는 경쟁체계를 운영하는 축제 전문 기관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사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올해 총장축제는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열렸다. 금남로·충장로·예술의 거리·5·18민주광장 등 동구 전역에서 펼쳐졌

으며, 총 47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국내 대표 시민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개막의 날·아시아 문화의 날·가족의 날·행진의 날 등 일자별 테마 운영, 퍼레이드, 주먹밥 콘테스트, 청년기획단 ‘썬이’ 프로그램, 시민 공모 기반의 시민 기획 프로그램 등 주민·상인·청년·아시아 커뮤니티가 함께 만든 다층적 참여 구조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상권 연계, 주민 주도형 행정동 퍼레이드(13개 행정동·2000여명 참여), 사회경제적 및 청년 창업자와 함께한 ‘총장 장터’, 아시아 커뮤니티가 참여한 아시아 문화의 날 등은 경제·문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 지역 활성화 모델

로 호평을 받았다.

또 올해 새롭게 선보인 ‘주먹밥 콘테스트’는 광주의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대 간 화합과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금상은 주민·상인·청년·예술인·아시아 커뮤니티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의 이야기가 콘텐츠가 되는 지속가능한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올해부터 ‘추억’ 브랜드를 기반으로 주민 설문·축제위원회 논의·현장 투표·폐막식 발표에 이르는 새로운 차년도 주제 선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6년 축제 주제를 ‘추억의 노래’로 확정했으며, 폐막 드론쇼에서 이를 공개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광주 동구는 최근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한국지부가 주최한 ‘2025년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지역활성화형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광주은행, 지역인재 104명에 장학금 1억3000만원 지급

1981년 설립...올해로 44년째

4804명에 40억3000만원 지원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광주·전남 지역 출신 장학생 대표 5명을 초청해 2025년도 (재)광주은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장학회는 고등학교·대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104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이들에게 총 1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1981년에 설립된 (재)광주은행장학회는 올해로 44년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총 4804명의 지역 장학생에게 누적 40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광주은행은 장학사업과 더불어 지역 청소년·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177호점)’,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광주·전남 지역 출신 장학생 대표 5명을 초청해 2025년도 (재)광주은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14호)’,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37기)’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학생 홍보대사(15기)를 운영하며 지역 인재 발굴과 직무 경험 제공 등 다방면의 청년 지원 프

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선발된 장학생 모두가 지역을 이끌어 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

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민주헌정 질서 수호 인정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수상 영예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사진)이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23주년 기념식 및 2025 한국인터넷기자상 시상식’에서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수상했다.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 시상식에는 국가적 민주헌정 회복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온 정치·언론·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 수상자로 선정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이남오 의장은 지방의회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헌정 원칙을 지키기 위한 소임을

다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남오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지난해 12월 3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민주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본보 양설란 기자 ‘2025 올해의 기자상’ 우수상

편집 부문...‘경제+기술로 미래를 여는 기업’ 선정

본보 양설란(사진) 편집부 기자의 <경제+기술로 미래를 여는 기업>이 ‘2025 올해의 기자상’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류성호)는 3일 ‘2025 올해의 기자상’을 발표했다.

올해의 기자상상은 한 해 동안 맘 흘리며 현장을 누빈 기자들의 열정적인 성과물을 한데 모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평가하자는 취지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

‘2025 올해의 기자상’에는 신문·통신의 취재·기획·사진·편집과 방송의 취재·기획 등 6개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총 22명이 선정됐다.

양 기자는 경제와 기술을 결합해 미래를 여는 지역 기업들의 핵심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해 독자들이 쉽고 빠



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이를 통해 지면가 독성과 독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 일관된 스타일과 용어를 사용해 기사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구현했다.

한편 ‘2025 올해의 기자상’ 대상에는 연합뉴스의 <참사 뒤 숨은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 구조물 최초 규명 보도(형민우·박철홍·정희성·현정인·정다음·김해인 기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대강당 8층에서 열린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지난 2일 연수원 대강당에서 광주시립극단의 연극 ‘소녀들’ 공연을 선보였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문화예술공연 ‘눈길’

예술의전당 협업...연극 ‘소녀들’ 무대 올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지난 2일 연수원 대강당에서 광주시립극단의 연극 ‘소녀들’을 공연.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예술공연 방청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예술단체의 무대를 한 층 더 넓혀 지역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예술의전당과 협업으로 진행된 공연은 발레, 오페라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공연 ‘소녀들’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배경으로, 억압 속에서도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며 연대하고 행동했던 소녀들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생생하게 되살려내 관객들에게 지금도 유효한 자유·용기·연대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웠다.

광주시립극단은 시대를 뛰어넘는 서사를 서정적인 노래극 형식으로 재구성해 관객들이 역사적 진실과 인간의 내면적

감정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총출하게 다듬어진 무대를 선보이면서 공연 내내 뜨거운 박수와 호응이 이어졌다.

특히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민생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결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일상 속에서도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데 큰 의미가 있다.

김병수 교통문화연수원장은 “문화예술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며, 시민의 삶을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언어”라며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와 기억해야 할 역사를 따뜻하게 건네는 감동의 자리였다”고 밝혔다.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예술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스며드는 도시, 예술이 일상 이 되는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주시협의회, 순창에 기부금 전달

고향사랑 500만원 기탁

군지회에 150만원 담례품도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주시협의회(회장 이명식)는 순창군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150만원 상당 담례품을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에 2차 나눔을 했다.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연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지속적인 우호증진을 위해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주시협의회와 새마을운동순창군지회간 MOU를 체결해 의미를 더했다.

이명식 회장은 “지난해 순창군과 목송그룹이 협약을 맺고 이번 직장공장새

마을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와 새마을운동순창군지회가 MOU 체결로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상생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순창군과 상생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권오준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회장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힘쓰시고 나눔을 몸소 실천해 주신 이명식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주시협의회는 순창군 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